

劇團 釜山 레퍼터리시스템 79회 정기공연

THE ODD COUPLE

희한한 커플

사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연극

완전한 여성 연극

제작/장세종

원작/닐사이먼

연출/이기원

'93 12월 10일 (금) ▷ 12월 31일 (금)

매주 화·수·목·금/PM 7:30(1회)

매주 토·일/PM 3:30, 6:30(2회)

광안리 SAY 극장

광안리 해변 627-7502

협찬 : 태평양약국 (부전시장 입구)





이 기 원

시월,
아련한 아픔이 있고 따가운 햇빛 저려오는 그들이 있어 좋다.
노랗고 빨간 단풍 그래서 돋보이는 상록수,
그리고 파란 하늘

가을,
가을의 중간에서
새싹 피우는 가로수를 보며 놀라지만 그건 생명력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는 자연의 섭리이리라
구름이 모여 비를 뿌리고 바람이 불어와 구름이 흩어지듯

결혼,
대부분의 사람이 다 결혼하고 후회하거나 또 웃으며 살아간다.
백년해로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노릇이라
이혼을 줄이는 방법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예식장을 쉬게 할 것

희한한 커플,
거기엔 이미 따갑고 간지러우며 켄끄러운 김새가 있다.
허나 인생이 어디 아픔과 즐거움만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인가?
사랑이란 것도 본래 미우나 고우나의 합성어가 아니던가!

극단 『부산』 레파토리,
수많은 단원이 오고 갔으며 남아있고 또 멀리 있기도 하지만
역사라는 것 진통이라는 것은 참고 또한 견디어 나가는 것이다.
같이 앉지도 말 것이며 동동 떠다녀도 곤란할 것이다.

연극,
그 수월찮은 노름을 십수년 하다보면
자주 곤혹스럽고 피곤해진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면 하는자들이 모두 병신일 격이다.
삶의 지혜로 고해를 헤쳐가듯
디오니소스의 축원, 처용의 혜안은 있기 마련이다.

추석의 달을 보고 시월 삼일 개천에 대해 생각한다.
태극의 음양과 건곤감리의 이치를 배우며
동서양의 문화적 정서의 상이점도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빛이있어 그림자 생기듯
우린 많은 시간, 정열을 헛되이 소모했기에
오늘 그 모두를 한군데 엮어 한꺼번에 앓는 것이다.
바보처럼 웃고 울고 떠들며 만났다 헤어지고 오고 가다가...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가을이 가고, 겨울은 온다.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는 결혼,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새롭게 구상할 수는 없을까?

대다수의 부부들은 결혼초기부터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겪는다.

그러나 2세를 위한 책임, 주위시선에 의한 체념, 타협에 의한 인내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어렵게 지속되어지는 결혼생활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여기 게으름과 자기 독선에 빠진 한 중년의 이혼녀와 부지런함과 결백에 가까운 깨끗함으로 인해 이혼의 문턱에선 그의 친구 그리고 그들의 친구집 위층에 사는 묘한(?), 이혼남의 등장으로 인해 벌어지는 웃음과 폭소속에서 이들이 사는 모양새와 그들 나름대로의 갈등을 보며 자신의 현실을 돌이켜 보는 연극이 있다. 어찌보면 우리 부부같고 어찌보면 우리 부모의 갈등같고 어찌보면 내 가까운 친구부부의 모습같은 현실속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를 느끼며 이 시대의 결혼생활에 대한 작은 지혜를 배워보자.

연극은 고상하고 어렵고 관념적인 것만은 아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웃으면서 보고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면 될 것이다.

기 · 획 · 의 · 말

김 비 오

눈을 떴다.

눈을 감는다.

눈을 다시 뜬다.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더욱 나를 괴롭힌다.

눈을 다시 감았을 땐 외로움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작품이 선다.

아침이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나 자신과의 싸움

그래도 난 믿는다.

내 마음속의 진실을

보잘것 없는 선배를 뒷바라지 하기 위해
서울에서 날아 온 연극과 후배 광호, 윤호,
상진, 종환 나의 믿음직스런 친구 남렬,
고생만 하다가 도망간 지루선배님
그리고 이번 공연에 참여했던
모든이들에게 감사드린다.

제 작/장 세 중
원 작/닐 사 이 몬
연 출/이 기 원
기 획/김 비 오



르네
이진희



실비
박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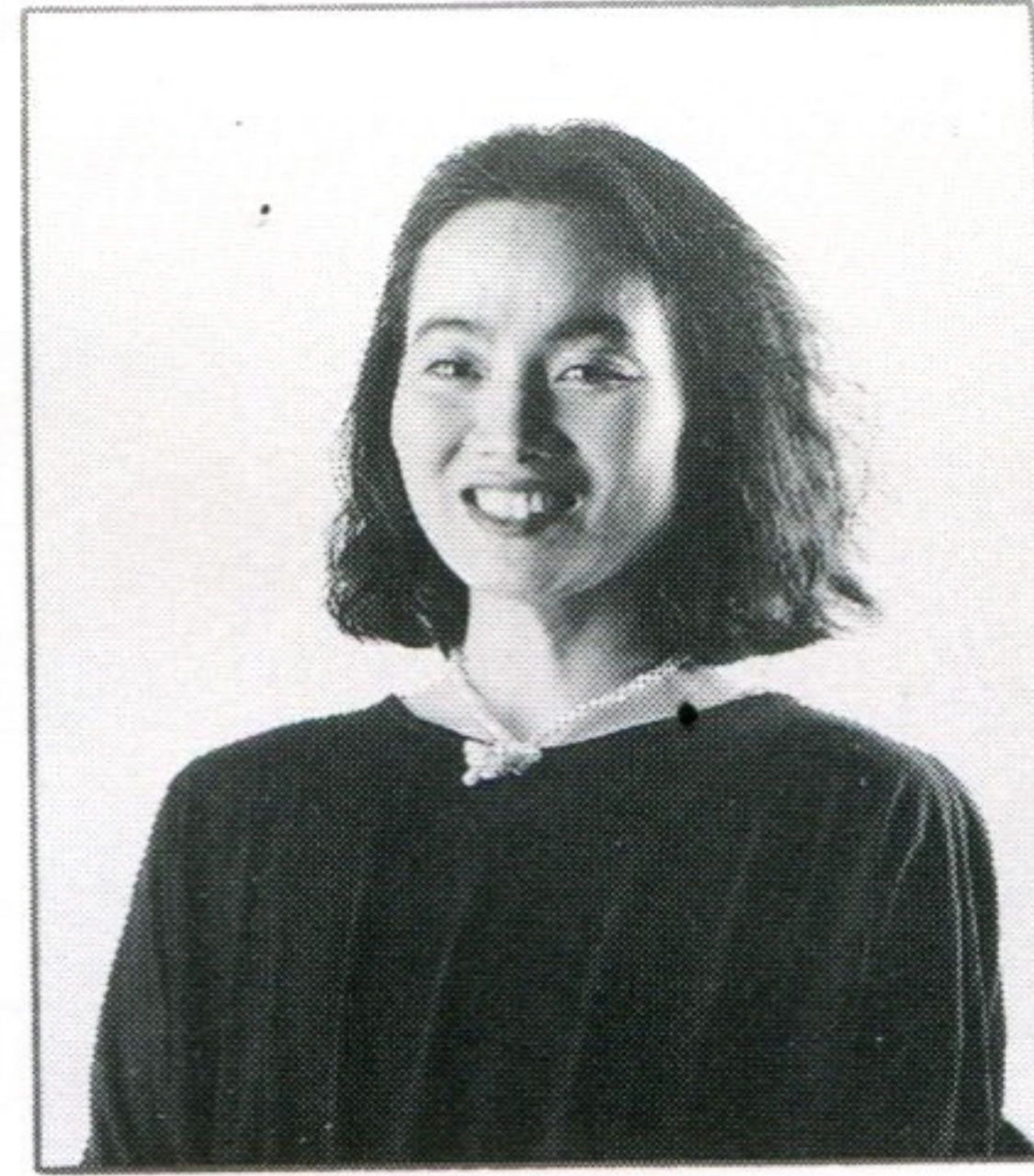
올리브
박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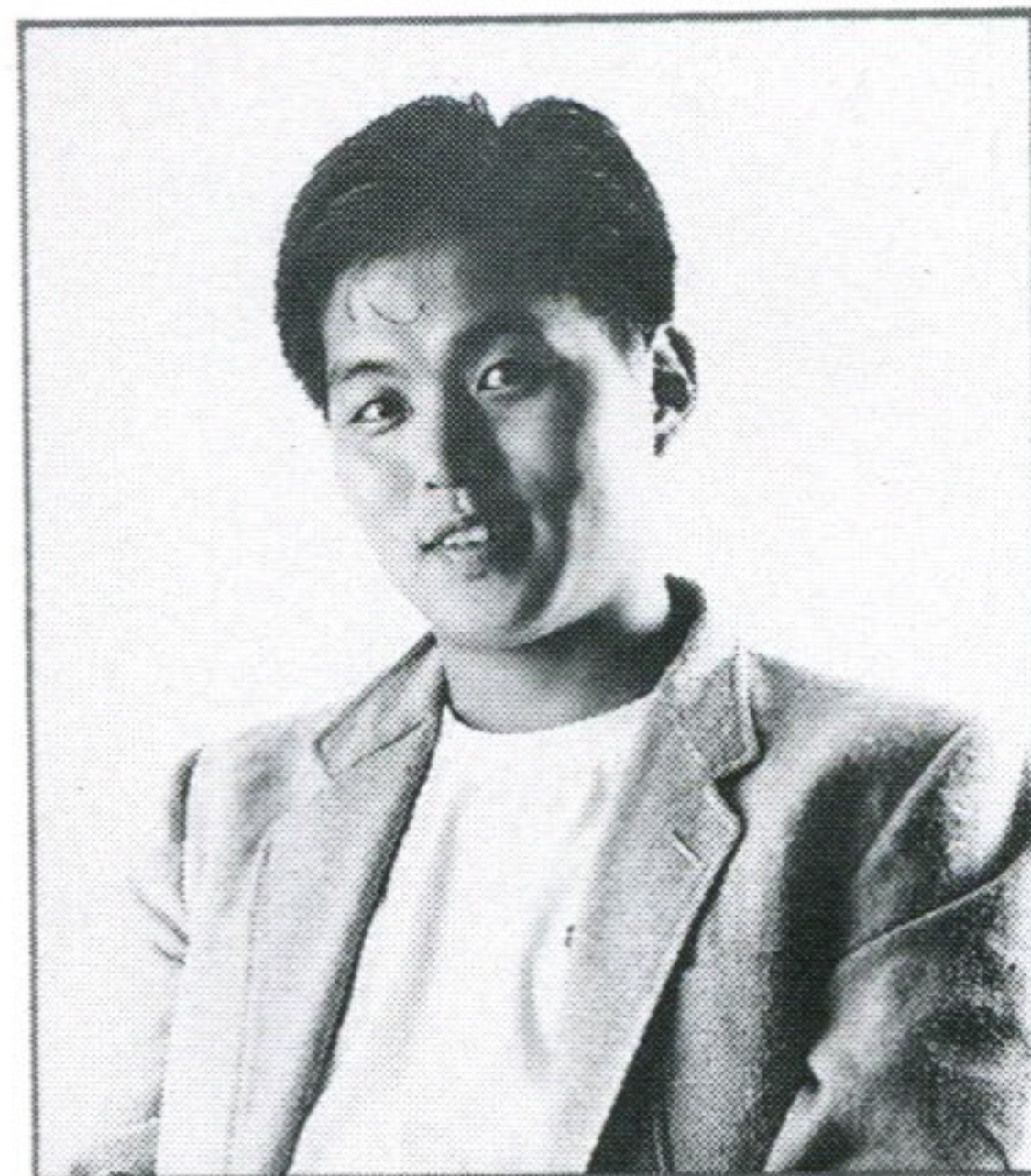
플로렌스
정행심



미키
이창진



베라
김혜정



헤이수스
김비오



마놀로
이상복

이 세상 모든이들을 사랑하고 싶다. *Ohm*

“부에나스·따르데스!” 이 세상 모든이들 행복하소서! *이상복*

타르데스씨래! 올리브! *1120*

“나의 작은 꿈을 찾아서 새롭게 도전하는거야!” *니킵*